

종교시설 중심 ‘코로나19’ 감염 확산 비상

수도권 교회 감염자 50여명
광주 광복사 관련 확진자 12명
여름휴가 기간 9월까지 확대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권고

전국적으로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상으로 여름 휴가기간 확대를 비롯한 점심시간 분산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정오를 기준으로 경기 안양시의 주영광교회와 관련해 교인 2명을 비롯한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 수가 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에서도 4명의 감염자가 더 나와 현재까지 총확진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 중앙침례교회는 교인 수 9여명 이상의 대형 교회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환자 수는 28명이 됐다.

광주와 전남에서 주말·휴일사이 집단 발생한 확진 사례도 광주 동구 소재 독립사찰인 광복사와의 관련성이 확인됐다. 현재 광복사 관련 확진자만 12명이다.

정부는 종교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여름 휴가기간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일단 7월 말~8월 초 민간 기업의 여름휴가가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름휴가 기간을 9월까지 확대 운영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휴양지로 몰리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9375개소에 대해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9일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 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해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또 휴가 기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해 분산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여름휴가 분산 실시는 권고 장려사항일 뿐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윤 방역총괄반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점심 시간에 식당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점심시간 분산운영 방안도 권고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점심 시작 시간을 2부제 또는

3부제로 나눠 운영하고 식사 대기 시 개인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와 같은 식사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은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남도는 29일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에 따라 목포시와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4개 시·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도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전남에서도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재

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을 재권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남도에서는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 승차거부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도록 해 왔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인구 50년 전보다 169만명 감소

50년후엔 109만명 줄어...전국 시·도 중 감소폭 가장 커

50년 전과 비교해 전남 인구가 169만명 줄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는 10~20대가 직장고 학교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탓으로, 50년 뒤 광주·전남 인구는 109만명 줄어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20

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총인구는 광주 149만명, 전남 176만명 등 전국 517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인구는 50년 전인 1970년(3224만명)에 비해 1954만명(60.6%) 늘었지만 전남지역은 무려 169만명(-4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인구는 1970년 345만명, 1980년 297만명, 1990년 248만명, 2000년 203만명으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릴 뒤 지난 2002년 200만 선이 붕괴됐다.

올해 광주 인구는 1970년 65만명에서 128.4%(84만명) 증가한 149만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50년 뒤인 2070년 지역 인구는 광주 56만명, 전남 53만명 등 총 10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 인구는 올해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은 뒤 오는 2033년 140만 선을 밑돌고 오는 2070년에는 93만명으로 주저앉

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 2030년 172만명, 2040년 167만명, 2050년 157만명, 2060년 141만명으로 줄어들며 2070년에는 123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처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간 인구는 총 11만5000명(광주 6만5000·전남 5만)으로, 지난해만 광주 7000명·전남 5000명이 수도권행을 택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국유사 권4~5’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현존하는 가장 이른 판본”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삼국유사 권4~5’(범어사본)가 국보로 승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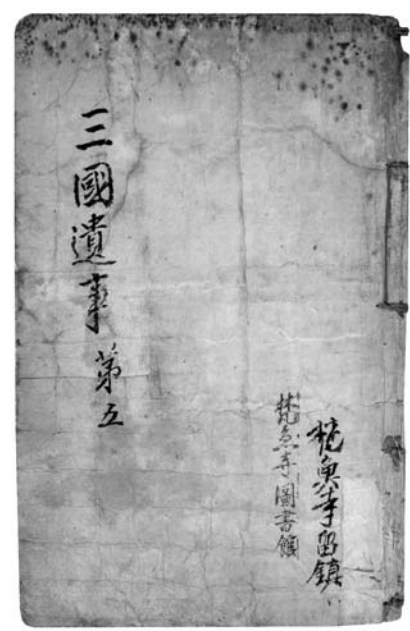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삼국유사 권4~5’는 1907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삼국유사는 모두 5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권4~5만 남아 있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판본은 1394년께 판각된 조선 초기 판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어사 소장본은 완질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목판으로 찍은 것이다. 동일판본으로 지정된 국보 2건(국보 제306호, 국본 제306-2호)과 비교했을 때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며, 서지학적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서체와 규격, 행간 등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조선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돼 왔다.

특히 단군신화를 비롯해 항참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고대 언어 연구의 참고자료가 된다.

문화재청은 “‘삼국유사 권4~5’는 현존하는 동종 문화재 가운데 가장 빠른



삼국유사 권4~5

인출본으로 기타 지정본의 훼손, 결락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며 “종교·역사·지리·문학·언어·민속·사상 등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국보로서의 가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재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元)나라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 권1~12, 23~34’를 비롯해 조선시대 정조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도장을 그린 건축화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一括)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왜곡 유튜브 영상 85건 삭제

방통심의위, 구글에 재요청...북한군 개입·DJ 폭동 사주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유튜브 영상 10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사업자인 구글에 요청해 85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구글에 이들 정보의 접속 차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재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구글은 지금까지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한 자율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한 내용

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심의해 이들 영상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월에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전담 조직으로 국제공조점검단을 띄웠다.

방통심의위는 “긴밀한 협력으로 구글의 전향적 협조를 끌어내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새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일 시 : 2020. 6. 23(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수강료 :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 시 : 2020. 6. 16(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천기비법 대 공개
•기감풍수 비법 교육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침술경력50년

금침을 한번만 맞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력감퇴
중풍마비, 각종 암, 불치통증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회사는 2020년 6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3,730,000,000원 중 금 3,357,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373,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당 금액 금 520원씩 주식 671,600주를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로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746,000주를 74,600주로 감감하고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본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동원중공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평산로22로 169
대표이사 박영준

산행안내

7월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1일(수) 경남 거제 저도(대통령별장)탐방/맹족죽테마파크/매미성 관람,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30, 교직원 공개회관 06:40, 예술회관 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방 박옥승(480607-XXXXXX)
•최후주주 : 전남 양도군 양도읍 청해진사로 50 101동 1406호(군내리, 현대아파트)
피상속인 방 박옥승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노단99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30일
•상속인 : 박권(730208-XXXXXX)
전남 양도군 양도읍 청해진남로 43 2층(군내리)
•신고기간 : 2020. 6. 30. ~ 2020. 9. 8.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권의 주소

7월4일(토)
▲광주금당산악회 7월4일(토) 영동 민주지산 물한계곡, 봉선동뚝데마트 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7월4일(토) 비금도 선왕산 도초도 수국축제,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5:5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 후문 06:2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8일(수) 전남 여수 남도 상산-둘레길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00,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방 박종인(000331-XXXXXX)
•최후주주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80 105동 206호(고려시멘트 사원아파트)
피상속인 방 박종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원 2020노단789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30일
•상속인 : 조광순(700925-XXXXXX)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80 105동 206호(고려시멘트 사원아파트)
•신고기간 : 2020. 6. 30. ~ 2020. 9. 8.
•채권신고처 : 상속인 조광순의 주소

교직원공개회관 07:10, 예술회관 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11일(토)
▲광주호산회 7월11일(토) 순창 송대봉 체계산 구름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1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7월12일(일) 지리산(정령치-고리봉-세걸산-바래봉), 염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홈플러스 07:4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27-6600